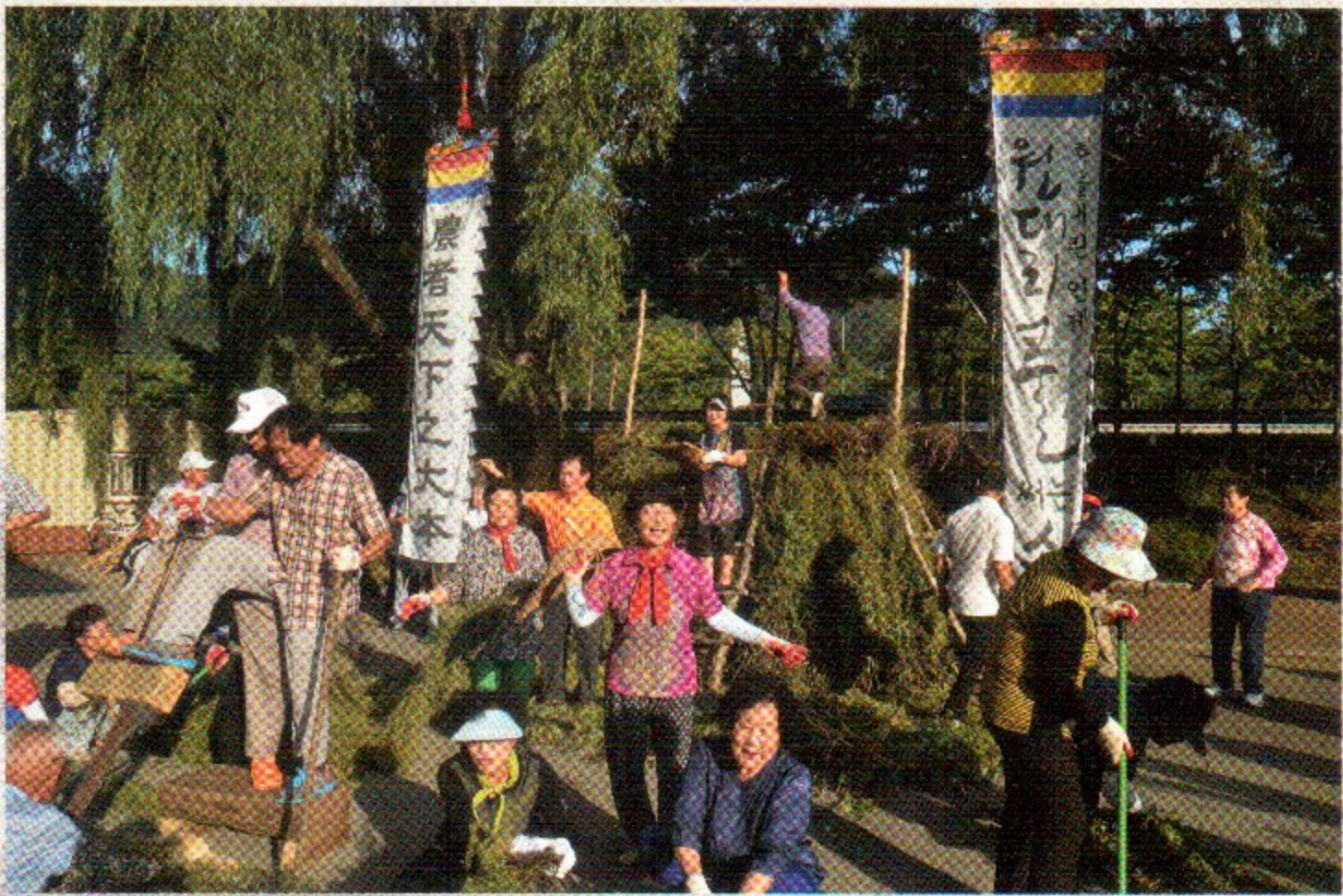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인제 월대리 풍물 썬는 소리

장소 | 영월공설운동장

기간 | 2015년 9월 10일 ~ 11일



인 제 군



인제문화원

## 발굴·재현



고증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21  
심흥규(81세)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院垔里)는 본래 동면지역으로서 院(원)집이 있었음으로 원터, 원대(院垔)라 했다고 전하고, 관음원(觀音院)이란 소암자(小庵子)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오고 있다. 191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원대리(院垔里)라 하였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 38°선이 생기면서 인제읍 소재 38°선 이북 10개 리(里)가 공산 치하(共產 治下)로 넘어가고, 38°선 이남 마을인 원대리는 홍천군(洪川郡) 신남면(新南面)에 편입되었다가 1951년에 다시 편입되어 인제읍은 11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거하여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행정리(行政里)는 모두 19개리다.

원대리 마을은 동쪽으로는 인제읍 하추리(下秋里)와 남쪽은 기린면 북리(北里), 서쪽은 남면 남전리(藍田里), 북쪽은 인제읍 고사리(古沙里)와 접해 있다. 모험레포츠의 천국인 인제군의 대표적 여름철 관광지로 래프팅을 즐기러 오는 탐방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최근 공중파 방송의 영향으로 마을에 있는 자작나무숲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인제 풀씨는 소리〉 특색

퇴비를 만드는 시기는 갈을 꺾은 다음 풀씨가 앉기 전 처서 무렵에 풀을 했다. 강원도에서 ‘풀을 한다’ 고 할 때는 갈을 말한다. 전자를 ‘재풀’ 이라고 하고, 후자는 ‘큰풀’ 이라고 한다.

재풀은 ‘진풀’, ‘김장 풀’, ‘감자 풀’, ‘썰 풀’ 등이라고도 했고, 큰풀은 ‘갈풀’, ‘거름풀’, ‘마구 풀’, ‘퇴비 풀’, ‘센 풀’, ‘밭이풀’ 등이라고도 했다.

큰풀은 처서 전인 8월경에 품앗이로 풀을 했다. 품앗이는 마을 남자들이 모여 순번을 정했다. 풀꾼들은 산에 올라가 부드러운 풀은 물론이고 잎이 달린 나무까지 잘라 왔다. 그렇기 때문에 ‘풀’ 이란 연한 풀만이 아니라 나무까지 의미한다. 풀을 해온 다음, 이를 거리 작두로 썰어 풀 가리를 만들어 쌓아 둔다.

거리 작두는 쌍작두라고도 하는데, 작두날은 하나지만 두 사람이 작두를 밟는다. 혼자 밟으면 굵은 나무는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둘이 힘을 주어 밟는다.

품앗이는 일곱 명 내지 여덟 명이 어울려 한다. 풀을 작두에 멕이는 사람이 한 명, 멕이는 사람과 마주 앉아 멕이는 사람에게 풀을 놔주는 사람 한 명, 풀꾼들이 쳐 온 풀 짐을 풀러 풀을 놔주는 사람에게 풀을 대주는 사람이 한 명, 작두를 밟는 사람이 두 명, 작두에서 나오는 풀을 쳐내는 사람이 한 명, 쳐낸 풀을 풀 가리에 쌓아 올리는 사람이 한 명 또는 두명이있는데, 이들을 ‘한 작두꾼’ 또는 ‘가진 작두꾼’ 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서 풀을 멕이는 사람과 풀을 놔주는 사람이 ‘풀 씨는 소리’ 를 했다.



## 출연진

**출연인원** 53명

**연출지도** 오일주 (부평초등학교 교장)

**소리지도** 장은숙 (강원소리진흥회 인제지부장)

**조사** 한승윤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함연호	66	주인	이만식	75	풀꾼	김수종	64	아낙
김종식	70	선소리	이병길	70	풀꾼	최남진	56	농악
이윤모	71	디딤꾼	김재문	79	풀꾼	남기순	53	농악
이태순	68	디딤꾼	현원일	68	풀꾼	최근모	55	농악
이춘근	69	디딤꾼	김육춘	74	풀꾼	조해경	45	농악
이사용	76	디딤꾼	구임순	73	풀꾼	김은화	43	농악
권원희	76	디딤꾼	이봉순	69	풀꾼	강세구	43	농악
김종근	77	디딤꾼	정농옥	68	풀꾼	윤순덕	67	농악
김무생	63	풀메이꾼	황상배	77	풀꾼	이애숙	59	농악
김옥순	70	풀메이꾼	장은숙	33	풀꾼	손순애	56	농악
이순자	72	풀메이꾼	김용석	56	풀갈이꾼	조경숙	56	농악
김필연	79	풀메이꾼	이남혁	60	풀갈이꾼	안남오	62	기수
김인숙	76	풀메이꾼	이주경	76	풀갈이꾼	박미숙	31	기수
김운성	82	풀메이꾼	허경자	74	풀갈이꾼			
손수복	76	풀메이꾼	박일남	63	풀갈이꾼			
정봉옥	77	풀메이꾼	김순녀	65	아낙			
손덕성	74	풀메이꾼	육영숙	77	아낙			
안춘자	68	풀꾼	김기자	74	아낙			
이선녀	60	풀꾼	이순덕	74	아낙			
박돈녀	66	풀꾼	최순녀	74	아낙			

## 풀 썰는 소리

유세차 남산부족 해동조선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올시다~  
우리 풀꾼들이 오늘 풀을 베어 거름 퇴비를 만들고자 하오니  
동서남북 어딜 가나 사방팔방 어딜 가나  
산심님이나 지신님께 축원발원이올시다~감응하옵소서

한 번 썰어 퇴비하고, 두 번 썰어 거름하니, 오곡이 풍년일세  
아홉 해 흉년이 다 지나가고, 십년 대풍 돌아를 왔네  
실농씨에 본을 받아 쌍 작두를 차려놓고  
작두는 게걸작두 다리는 무쇠다리  
노천 우라리 쓸어 벌 때 산천초목도 이름이 있는데  
장생불사 고로쇠나무 천년만년 주목나무  
왔다갔다 기둥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엮어졌다 엄나무요 자빠졌다 잣나무세  
사탕 물어 다래나무 벌벌 떠는 사시나무  
칼로 찢러 피나무라  
마굿간에 소나무요 송아지 낳다 소태나무  
양지짝 보 소리요 웅달짝 물갈리로다  
일시도 마음 놓지마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아름드리 들어간다 메기기도 잘메기고 딛기도 잘 딛는다  
훈인대사 국수대요 막중대사 떡갈나무  
아닌 밤 중 밤나무요 한다리 절뚝 전나무요  
워리 불러 개똥나무 정자 좋아 느티나무

여러분들 풀꾼님네 이참 저참 새참인데  
열무김치 오조 밥에 막걸리 한잔 하고 하세  
막걸리 한잔 들고 하세, 막걸리 한잔 먹고 하세  
감자전이 안주를 막고 올챙이묵이 배를 채우니  
우라리가 들어와도 눈만 끔찍 짤라지고  
노천이가 들어와도 입만 실쭙 끊어진다

무름찬 노천이요 엄불 덩불 침덩굴이요  
띠꿈 때꿈 가시덩굴 땡땡이 썩덩이요

지렁이 갈비대로다 등등올려라 북 나무요  
방귀 꺾었다 뽕나무라 천식 고뿔 가래나무  
아기 재워 자장나무 잘도 잔다 잣나무라  
어깨너머 등나무요 어사났다 광대싸리  
마당 쓸어 쫓록싸리 양양강릉 꽃감꽃이  
참싸리로구나 참 싸리요  
일시도 마음 놓지마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아름드리 들어간다 메기기도 잘메기고 딛기도 잘 딛는다  
십리바깥 스무나무 온다고 옷나무요  
간다고 갈풀이라 초상났다 향나무요  
제사 꽃감 대추나무 우라리요 우라리아  
우다닥 똑딱 개금나무 박달똑딱 홍두깨나무  
들었다 뵈다 들충나무 시내강변 갈다리라  
풀더미가 태산이니 광문이 열렸구나

풀꾼들은 지계를 지고 소리꾼은 소리를 주니  
디딜꾼은 신이나니 빈작두를 들었다 뵈다  
쇠스랑 걸인대가 춤을 춘다  
풀더미가 태산이니 광문이 열렸구나  
얼씨구 좋다 풍년이요, 절씨구 좋다 풍년일세  
이리보아도 풍년이요, 저리보아도 풍년이로세~  
올해도 대풍이요

풀꾼들은 지계를 지고 소리꾼은 소리를 주니  
디딜꾼은 신이 나서 빈 작두만 들었다 놓고  
거린데 쇠스랑 춤을 추니 풀가리만 커지는구나  
오늘날은 이집이 하고 내일날은 저집이 하니  
집집마다 풍년이요 동네마다 풍년일세  
앞으로 봐도 풍년이요 뒤로 봐도 풍년이요  
옆으로 봐도 풍년이요 돌아봐도 풍년일세  
앞으로 끌면 황송아지요 뒤로 끌면 암송아지다  
우로 돌면 풍년이요 외로 돌면 흉년이다